



# ‘아름다운 인연’ 만들어 갑니다



법륜사 주지 보경스님(사진 맨 앞쪽 왼쪽)을 비롯한 사부대중들이 7월26일 법보시책자가 불법의 종자로 쓰여지기를 기원하고 있다.

## “군부대와 교도소에 불법의 씨앗 뿌려졌으면”

### 법륜사, 불서 1천권 나눔의 손잡기에 기탁

“군부대 장병·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불법의 씨앗이 뿌려졌으면 합니다.” 서울 사부대중 법륜사주지 보경가 7월 26일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서 나눔 법회를 개최했다.

법륜사는 이날 불일출판사가 발행한 10종 각 100권씩 1천여권을 분사 나눔의 손잡기 운동에 기탁했다.

이날 참가 사부대중은 전달되는 불서군부대의 장병들과 교도소의 재소자들에게 불법의 종자로 쓰여지길 기원하며 두 손 모으고, 반야심경을 봉독했다.

법륜사 주지 보경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알기 쉽도록 하는 취지에서 불일출판사가 발행한 불서 1천권을 군장병들과 재소자들에게 전달하게 돼 기쁘다”며 “법보시운동을 펼치는 현대

불교의 뜻에 동참하며, 법륜사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법륜사가 전달한 불서는 <인연이야기> <푸른산 흰구름> <연꽃속의 보석어여> <달처럼 매화처럼> <선, 삶의 요리법> <생각은 있으나 생각하는 자는 없다> <효봉선사 일대기> <삶이 즐거운 불교이야기> <세수하며 코만지기 보다 쉬운 불교이야기> <아들이 달고깨다 외동겨라> 등이다.

법륜사에서 분사에 기증한 불서를 원하는 군부대나 교정시설은 현대불교신문 나눔의 손잡기 운동본부(02-722-4162)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법륜사는 6월 20일 군부대 장병용 호신불 3만여개를 제작, 군부대에 전달했다.

김원우 기자

## “법륜사를 도심 속 나눔 사찰로”



인터뷰 주지 보경 스님

“법륜사를 도심 속 나눔 사찰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서울 경복궁 옆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순천 송광사 서울본원 법륜사 주지 보경 스님(조계종 중앙총회 의원·사진, 1년 전 주지 소임을 맡은 스님은 “출가자는 포교와 수행밖에 할 것이 없다”며 “포교는 나눔운동 동참을 통해 실천하는 일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타종교 보다 불교신자가 많으니 적으니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씨를 뿌린 만큼 성과가 있다. 출가 수행자를 비롯한 불자들은 부처님 법을 알리고 인연 심는 일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부처님 법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각 사찰마다 군부대와 교도소, 복지시설과 연계해 적극적인 후원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의 각 사찰에서 해야 할 일을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주도적으로 해주고 있어 감사할 따름”이라는 스님은 “앞으로 교도소와 군부대에 법보시, 호신불 보내기 운동을 연중행사로 준비하는 등 나눔운동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소임 스님들과 결연을 맺은 서울 중로구 거주 어린이 40여명은 예산 수덕사와 서산 부석사 등지에서 불교문화와 스님들의 생활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덕사 암자인 화소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의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7월 23일 오전 8시, 배낭을 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하나 둘 조계사 앞으로 모여 들었다. 이들을 기다리던 스님들 또한 아이들이 보이자 이들을 부르며 반갑게 맞이한다.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마치 부모와 자식이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다.

이날 스님과 아이들은 조계종 총무원(원장 법장)이 ‘1사찰 1가정 결연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아름다운 인연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다. 아이들은 불교문화와 스님들의 생활을 둘러보면서 신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로 가득하다. 엄마, 오빠와 함께 참여한 지현(15·중앙중2)이는 “가족들과 함께 짝에 가보긴 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은 처음”이라며 상기된 표정이다.

아이들의 소중한 인연을 실은 버스에서 내린 첫 행선지



최예슬(12·왼쪽 두번째)·수빈(7) 자매가 후원인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바나나보트에 올라 앉아 파도를 가르던 학생들을 지켜보던 사회부장 지원 스님은 “진짜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이제야 행사를 갖게 돼 아쉽다”며 “종교에 구애받지 않고 저 학생들이 씩씩하게 자라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느새 검게 그을린 얼굴로 아이들은 예산 수덕사를 찾았다. 스님들과 함께 한 대웅전에서 저녁 예불시간, 낮선 의식을 접해본지 다소 어색하면서도 다들 눈빛만은 진지하다. 긴 예불이 끝나자 평가를 해했다는 표정으로 차담이 마련된 황하정루로 자리를 옮긴 40여명의 스님과 학생들은 함께 둘러 앉아 차를 마시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냈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산과 바다에서 함께 뛰어 놀지 못해 아쉽고 미안하다”며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 맑은 사회를 가꾸는 소중한 동남이 되라”고 당부했다. 문화부장 성정 스님과 결연을 맺은 지원(13·금화초6)이는 “평소 교회를 다녀서 짝에는 처음 왔지만 직접 와서 보니 동양적 판타지에 빠져드는 느낌”이라며 “스님들의 말씀대로 훌륭한 소설가가 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글을 보여주고 싶다”고 소망을 밝혔다.

이튿날 서산 마애삼존불 순례를 끝으로 나누면서 하나가 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아름다운 인연만들기’는 마무리됐다. 그러나 아이들의 가슴엔 자리엔 마애삼존불에 나투신 부처님의 미소처럼 넉넉한 마음을 간직하며 살겠다는 다짐이 남아 있다.

예산=박영기 기자

## 조계종, 결연가정 어린이 초청 수덕사·마애삼존불 등 순례 인근 해수욕장서 물놀이도

서산 부석사, 1시간 30분을 달려왔지만 절로 올라가는 길이 학생들에게 쉽지 않은 않다. 동네 뒷산에 올라가본 것이 전부여서 무척 힘들다고 투덜대던 영태(10·장신초3)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들을 쏟아냈다.

“부처님은 어떻게 생겼어요?” “스님들은 무얼 먹어요?” “절은 왜 산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일문 가서 부처님 얼굴을 보고 싶단다.

원주 원우 스님의 환대 속에서 ‘사찰식 뷔페’를 맛본 아이들은 사찰소개가 이어지자 신기한 눈빛으로 귀를 쫓긋 세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더운 날씨를 못 이겼는지 연신 바닷가로 가자고 아우성이다. 짙은 안개로 인해 바다가 어디에 있는지 구별이 쉽지 않은 빙개해수욕장으로 향했다. 아이들은 차에서 내리기가 무섭게 웃을 갈아입고 물로 뛰어 들어간다.

**나눔의 스티커 신청**

대전시 유성구 추곡동 국군군학교 약천사  
저금통 - 10개  
스티커 - 500장

공주시 금흥동 노중윤  
스티커 - 50장

**나눔의 손잡기 현금**

부산시 이제권 50,000  
이현이 50,000

총 누적금액 17,765,350원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우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기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

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람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 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현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현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야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어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